

# 서면답변서

소 속	평창군의회	질문위원	김진석 위원
답 변 자	평창군수 (스포츠사업단장)	답변일자	2007.12.14
회 의	제144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6차예결특위		

## 질문요지

- 인공제설기 구입 건의안 사본 제출

## 답변내용

-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임 군수님께 드리는 건의문 1부 끝.

# 군수님께 드리는 건의문

존경하는 군수님께

군민들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군수님께 5만 군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두 번의 동계올림픽 유치실패로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5만 군민들은 쓰디쓴 좌절감을 맛보았지만 불굴의 의지로 우리들은 다시 2018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다시 일어섰습니다. 5만 군민의 저력과 4천 8백만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원이 있기에 2018 동계올림픽 유치는 반드시 성사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건의서를 올리게 된 것은 두 번에 걸친 동계올림픽 유치활동으로 우리 평창은 세계적으로 동계스포츠의 메카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고장을 찾아오는 내방객들에게 눈과 관련된 불거리·즐길거리를 제공하여 『눈의 고장』의 위상을 재정립시키고,

겨울철 밖에서의 놀거리가 거의 없는 우리지역의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인공눈을 만드는 시설기를 구입하여 간이 눈썰매장, 이글루, 눈사람 등을 만들어 주어 낯선 겨울방학의 무료함을 달래고 체력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오나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는 읍·면체육회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는 도저히 시설기 구입비용을 감당할 수 없

기에 군수님께 인공 제설기 구입 지원을 요청하오니 적극  
지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군수님 덕내에 두루 평안하시고 평창군의 영원  
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07년 9월 초

평창읍체육회장	조	진	호	조진호
미탄면체육회장	김	재	하	김재하
방림면체육회장	박	순	언	박순언
대화면체육회장	이	병	천	이병천
봉평면체육회장	곽	용	학	곽용학
용평면체육회장	배	희	순	배희순
진부면체육회장	정	의	전	정의전
대관령면체육회장	이	범	연	이범연

덧붙임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계획서

1. 사업명 : 동계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한 제설기 구입

## 2. 사업추최

- 단 체 명 : 평창군 읍·면체육회
- 성명(대표자) : 조진호외 7명

## 3. 사업목적 및 내용

### ○ 사업목적

- ▷ 우리지역은 동계스포츠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지구 온난화 등 기상변화로 인하여 겨울철에 눈이 거의 오지 않고 있어
- ▷ 인공눈을 만들 수 있는 제설기를 구입하여 간이눈썰매장, 이글루, 눈사람 등을 만들어 내방객에게 볼거리·즐길거리를 제공하는 등 『눈의 고장』의 위상을 재정립시키고
- ▷ 겨울철 실외에서 놀거리·즐길거리가 거의 없는 우리지역의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놀거리·즐길거리를 제공하여 무료함을 달래고 체력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 사업내용

- ▷ 인공제설기 구입 2대(평창,미탄,방림,대화 1, 봉평,용평,진부,도암 1)
- ▷ 수중 모터펌프 구입 2대
- ▷ 설치장소 : 평창읍 중부리 평창교아래 하천변(스케이트장옆)  
봉평,용평,진부,도암면 중 1개소

4. 사업기간 : 2007.12.1 ~ 2008.2.28

5. 소요사업비 : 86,000,000원(군비 보조)

- 인공제설기 구입 : 40,000,000원×2대=80,000,000원
- 수중 모터펌프 구입 : 3,000,000원×2대=6,000,000원

평창군수 귀하

# 평창읍스케이트장 25년만에 재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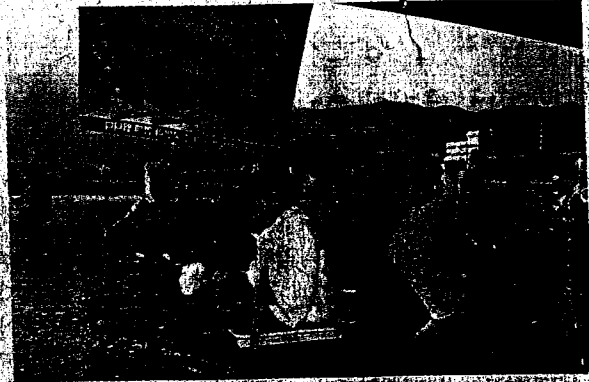
평창읍체육회 500평규모 무료개방

지난 1982년 이후 사라졌던 스케이트장이 25년만에 무료 개장돼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평창군 평창읍체육회는 17일 평창읍 중부리 평창교 아래 둔치에 500여평 규모의 스케이트장을 개장하고 평창읍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무료로 개방했다.

평창읍 스케이트장의 경우 지난 1982년 이전까지는 평창읍 여만리 강변에 대형 스케이트장이 매년 개장돼 주민들의 겨울 놀이공간과 건강증진을 위해 사용되어 왔지만 이후 스케이트 이쿠기 단절하고 인구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이에 평창읍체육회는 2007년 새해 첫 사업으로 포클레인과 덤프트레를 중심으로 평창전의 일부를 가두고 설을 앞둔 스케이트장을 조성하고 추위를 2014 동계올림픽 유치를 기원하는 플래카드도 유치부 위기 조성에 나섰다. 특히 평창읍 주민 건강증진스케



평창읍체육회가 지난 17일 평창교 둔치에 500여평 규모의 무료 스케이트장을 개장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트장에는 체육회원들이 직접 제작한 60종의 스케이트와 패이 40개, 연 20개, 쥘놀이, 얼음축구 등 다채로운 겨울 전통놀이까지 가능하도록 조성해 남녀노소가 누구나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조진호평창읍체육회장은 "주민들의 건강 증진유를 위해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앞장설 체육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평창=김영석기자>

강원일보 2007년 1월 19일

## 평창강 둔치 신다리

### 무료 스케이트장 개장

평창읍체육회(회장 조진호)는 17일 평창읍 평창강 둔치 신다리 밑에 평창읍반영회의 평창읍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무료 스케이트장을 개장했다. 평창읍체육회 회원들이 제작한 60종의 스케이트와 패이 40개, 연 20개, 쥘놀이를 비롯한 얼음축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 <평창>

강원도민일보 2007년 1월 19일

## 스케이트장에 가보셨나요?

이연자

날이 춥지 않은 푸근한 날이면 아버님,어머님께서 점심식사 후에는 종부다리를 지나 걷기 운동을 하십니다.

지난 주에는 다녀오시더니 종부다리 밑에 스케이트장이 생겼는데 아이들이 많이 놀고 있더라 하시길래 참 좋은 생각을 누가 했는걸! 하며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며칠 후 초등학교 4학년인 아이를 데리고 자전거를 달려 가보았더니 그리 크지 않은 스케이트장은 아이들의 겨울놀이를 즐기는데 충분하였습니다.

아이는 처음 타보는 재래식 스케이트를 어색하게 타 보더니 이내 익숙하게 뽕뽕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어릴 적 아버지께서 만들어 주신 스케이트를 생각하며 어느새 작은 스케이트에 앉아 회상에 젖어 아이와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예전에는 스케이트 날이 하나인 외발 스케이트가 있었는데 손잡이가 길어 서서 타는 것이 있었다고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을 해주었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아이는 연신 이렇게 재미있을까? 엄마 너무 재미있어요! 하는데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아이맘이 그래서 였을까 그리 오래 놀지는 않았어도 충분히 만끽한 듯 참 즐거운 오후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어렸을 때 여만리 소 밑에는 스케이트장이 있었지. 얼음 밑의 강물색이 어찌나 깊은 소 였던지 퍼렇다 못해 검은얼음이 공포를 느끼게 할 정도였어. 그 때는 너무 추워 온통 강물이 꽝꽝 얼어서 다리를 건너지 않고도 강을 가로질러 스케이트장을 갈 수가 있었단다.

발이 너무 시려워서 피워 놓은 모닥불에 불을 쬐다가 양말에 구멍이 난 줄도 모르고 있었어.

스케이트를 빌려서 타기도 했고 편을 나눠 얼음 축구를 했지.

정말 신나게 놀았어. 그 때가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드네! 아마 ○○이도 어릴 때 엄마맘 같았을까?" 했더니 짐작이 안되는지 밤에 또 오자고 말을 합니다.

그 날밤 설거지가 채 끝나기도 전에 보채는 아이와 다시 갔더니 아는 사람들도 와서 온 가족이 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버님께서 운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가 놀러갔다는 얘기를 듣고 들러 보았는데 당신께서도 한 번 타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떠셨어요? 했더니 웃으십니다.

맨 처음 누구의 생각이었을까요?

누군가 참 좋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후 매년 스케이트장은 훌륭한 모습으로 발전을 거듭하며 개장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주관하신 평창읍 체육회 조진호 회장님을 비롯하여 평창군,평창읍 변영회의 후원에 감사드리며 2014동계올림픽이 꼭 평창에서 개최되기를 군민의 한사람으로 간절히 바래봅니다. 건투하십시오.

## 중부다리엔 만국기가

엄기종 |

중부다리엔 만국기가 펠릭이다. 1월 17일 밤 9시 다리 밑을 밝히는 전등불 아랫 아이들과 앉질뱅이를 끄는 어머니들이 한참 어울려 신이 났다.

조진호 평창읍 체육회장은 체육회 임원들과 모닥불에 둘러 서서 오늘의 스케이트장 개장 이후의 얼음축구, 팽이치기, 얼음볼링, 연날리기, 쥐불놀이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빙판의 관리와 청소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있었다.

평창의 겨울 얼음놀이장이 1982년까지 열리다가 중단된지 무려 25년만에 겨울정취를 되찾았다니 감개가 무량하였으리라. 사천강 너른 중부다리 아래 평창읍체육회가 주관하고 평창읍과 평창읍번영회에서 후원하여 적당한 규모의 스케이트장을 열어주신 노고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애들은 애들대로 어른들도 동심의 세계로 초대에 응해 봄이 좋겠다.











## 제품소개

### ① 팬타입인공제설기

- ▶ 회사소개
- ▶ 제품소개
- ▶ 슬로프관리
- ▶ 기술특허
- ▶ 제품재고현황
- ▶ 문의사항

QUICK MENU



#### 1) 팬타입제설기 용도

- ▶ 스키장 및 눈썰매장의 슬로프에 눈(雪)을 제조하는 장치.

#### 2) Technology & Quality

- ▶ 고온(-1℃)에서의 눈 형성 능력이 뛰어나다. Bypass관과 이중관을 연결한 특수 구조의 Manifold system.
- ▶ 동결방지를 위한 Auto drain system
- ▶ 수입 외산 제설기와는 차별화된 기술로, Main 전원이 Off 되어도 제설기 배관내의 물이 자동적으로 Drain 되는 동결 방지시스템.
- ▶ 눈 생산량이 많다.
- ▶ Nozzle control이 세분화 하도록 고안하여 눈 생산량 증대.
- ▶ 자연설에 가까운 눈 생산
- ▶ 간편한 조작, 튼튼한 구조, 적은 고장률
- ▶ 전문 엔지니어들의 신뢰 있는 기술서비스

#### 3) Technical Specification

제품명 / Model	팬타입 인공제설기 / Snow	
Height	2.2m	
Dimension	Length	2.65m(견인장치 제외)
	Width	2.3m
	Weight	750kg
Compressor	Compressor Type	5.5kW
	Compressor Power	5.5kW
	Motor Power	15kW
Power Consumption	Compressor Power	5.5kW
	Motor Power	3kW
	Control Power	40EA
Nozzle System	Control Power	20EA
	Water pressure	10Bar~40Bar

